

2019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약의 정경 안에서의
놀라우신 그리스도

메시지 13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생활함과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성경: 벧전 1:2, 17, 2:21-25, 3:15, 4:12, 15-19, 5:5-8, 벧후 1:1-4, 3:13

I.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것이다.

- A.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그분의 다루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 — 벧전 1:2.
- B.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 벧후 1:1-4, 3:13.
- C.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통치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벧전 1:17, 4:17.
 - 1.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서신들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심판은 본질적인 항목들 중 한 항목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 벧전 2:23, 4:5-6, 17, 벧후 2:3-4, 9, 3:7.
 - 2. 다양한 종류의 심판들을 통해 주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말씀하게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으심으로써,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 벧후 3:13.
- D. 베드로전서 1 장 17 절에 있는 심판, 즉 아버지께서 수행하시는 심판은 장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 매일의 심판이다.
 - 1. 아버지는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거룩한 아버지, 즉 거룩한 가족을 산출하시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 벧전 1:3, 15, 17.
 - 2.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벧전 1:15-16).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을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것이다 — 벧전 4:17, 히 12:9-10.
- E.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징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 벧전 4:17.
 - 1.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 벧전 1:17.
 - 2. 하나님은 그분의 집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분의 통치 상의 행정에 속한 심판에 있어서 믿는 이들을 다루시기 위해 불 같이 흑독한 시련들을 사용하신다 — 벧전 4:12, 17.
 - 3.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벧전 4:6.

II. 베드로는 그의 서신들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의 짝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 벧전 1:17, 2:21, 24, 3:15, 4:17, 5:5-8.

- A. 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긴 과정을 통과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 요 1:14, 14:17, 고전 15:45 하, 6:17.
- B. 이와 동시에 삼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 벰전 4:19.
- C. 비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새 창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창조물 안에 있다 — 요 1:12-13, 3:3, 5-6, 고후 5:17.
 - 1.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상의 다루심이 필요하다 — 벰전 1:17.
 - 2.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상의 징계가 필요하다 — 벰전 2:2, 4:17, 벰후 1:5-7.

III.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 생활을 사셨으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렸다 — 요 6:38, 벰전 2:21-24.

- A. 주님은 그분이 받은 모든 모욕과 상처를 의로우신 하나님, 곧 자신의 통치 안에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맡겨 드렸으며 그분께 복종하셨다. 주님은 이러한 의로우신 분을 신뢰했고 그분의 통치를 인식하셨다 — 벰전 2:23.
- B.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 조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과 하나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접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셨다 — 시 16:7, 사 50:4.

IV.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 — 요 3:15, 1:12-13, 벰전 4:13-19, 5:6-8.

- A. 베드로의 서신들은 우리가 고난들을 통해 안배된 하나님의 통치상의 다루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 벰전 1:6-8, 2:3-4, 19, 21-25, 3:18, 22, 4:1, 15-16, 5:8-9.
- B.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져야 한다 — 벰전 5:6.
 - 1. 6 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정상의 손을 가리킨다 — 벰전 1:17, 4:17.
 - 2.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에 협력해야 하며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기를 기꺼이 원해야 한다 — 벰전 5:6.
- C.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께 우리의 혼을 맡겨야 한다 — 벰전 4:19.
 -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보존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한 돌봄이 그분의 통치상의 행정 안에 있는 그분의 정의와 함께 하신다.
 - 2.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심판을 당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창조주의 신실한 돌봄에 맡겨야 한다 — 마 10:28, 11:28-29.
- D.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죄들을 향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의를 향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벰전 2:24.
 - 1. 하나님의 통치는 의(義) 위에 세워진다(시 89:14 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생활을 살아야 한다.
 - 2. '의를 향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상의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 벰전 2:24.
 - a.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롭게 살도록, 즉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들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b.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들로부터 분별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의로운 생활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롬 6:8, 10-11, 18, 엡 2:6, 요 14:19, 딤후 2:11.

- V.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 벰전 2:25.
- A.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감독하시며 우리의 내적인 존재에 속한 상황들을 돌보신다.
1.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은 주로 우리의 혼을 돌본다 — 시 23:3.
 2.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복지를 돌보심과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 비교 히 13:17.
 3. 이러한 종류의 목양은 내적이며 내재적이며 유기적인 위로이다.
- B.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문제들과 필요와 상처들을 돌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 요 14:16-17, 고전 15:45 하, 6:17.
1. 우리의 공기 같은 영이신 목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를 돌보신다.
 - a. 그리스도의 목양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으로 퍼진다.
 - b.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시며 부드럽고 유기적이며 모든 것을 포함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2. 이것이 거듭난 믿는 이들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내적인 목양이다.
- C. 우리의 혼의 목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신다 — 시 23:3 상.
1. 우리의 혼이 소생되는 것은 우리가 부흥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또한 새롭게 됨과 변화를 포함한다 — 롬 12:2, 고후 3:18.
- D. 우리의 혼의 목자로서 주님은 우리의 혼에 안식을 주신다 — 마 11:28-30.
1. 주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며 또한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힘쓰는 이들에게 그분에게 와서 안식하도록 부르신다 — 마 11:28.
 2. 이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3.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마 12:50.
 - a.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의해 제한받으며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사셨다 — 요 4:34, 5:30, 6:38.
 - b.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고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다.
 4.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움으로써 찾을 수 있는 안식은 내적인 안식, 우리의 혼을 위한 안식이다 — 마 11:29-30.
- E.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하시고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 아니라 그분을 누린다 — 빌 2:2, 3:1 상.
1.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문제이다 — 빌 1:27, 2:2.
 2. 우리의 혼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만 가질 수 있다.
 3.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맛은 주로 우리의 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혼의 각 부분, 특히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4.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 안에서도 그분과 하나되어야 한다 — 빌 1:27, 2:2.